

보험범죄 근절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전북경찰청·금감원·건강보험공단·보험사 등 23명 참석 '보험사기수사협의회' 개최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전북지역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구축을 미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수사협의회는 중요 안전사항을 마련해 지난 25일 전북경찰청 5층 회의실에서 집중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수사협의회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 등 10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등 13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찰의 수사력과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범죄를 근절하자"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교류, 자료 분석지원,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전북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3년 상·하반기 보험사기 특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수사협의회는 중요안전사항을 마련해 지난 25일 전북경찰청 5층 회의실에서 집중논의가 이어졌다.

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경찰 보험사기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민영·공영보험 관련 각종 보험사기 범죄 중 병원관계자, 중개인 개입 등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도내 보

험사기 주요사태 중 '고의 교통사고 야기'와 관련, 교통범죄수사팀은 설계사, 애인, 친구사이, 외제차 이용 법규 위반 차량상대 고의사고 후 허위입원 수법으로 5700만 원 편취한 피의자 3명 검거(구속 1명)했다.

교통범죄수사팀은 또한 노면표시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상대 고의 사고

후 허위입원, 튜닝된 고가의 타이어휠 미수선처리 등 방법으로, 4년6개월간 49회에 걸쳐 4억5000만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10명을 검거했다.

완산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상대과실이 많은 차량과 고의 사고를 유발 후 수리비, 진료비 등 3억12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구속 2명)했으며, 덕진경찰서는 조직적으로 렌트카와 승용차로 고의사고 야기 후 수리비, 진료비 등 명목으로 422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6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허위과다 입원'과 관련 완산경찰서는 병원 치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을 수령하기 위해 한의원에 입원 후 1억2418만 원의 보험금 편취한 피의자 18명을 검거했다.

김제경찰서는 냉동창고에 화재가 나자 냉동육이 창고에 보관 중 소해됐다' 허위 보험금 청구 6회에 걸쳐 8억 800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김영태 기자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 '만전'

전주시 완산구, 5개 공원 LED등 교체·47개소 놀이터 소독

완산구가 어린이공원내 안전한 놀이 환경 제공을 위해 조도 개선 공사 및 방역을 펼쳐 관내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어린이공원 4곳 포함 총 5개 공원의 등주 및 등기구 LED등(총 367개)으로 교체해 아이들과 함께 새벽·저녁 산책주민들에게 밝은 공원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소독(상반기 47개소)을 실시해 보건안전에서도 우수한 공원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구의 놀이환경 조성은 중화산2동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다.

조성의 세부내용 중 소독에서 모래소독은 반려동물과 조류의 배설



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고온으로 모래뒤집기, 이물질제거, 스티프소독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며, 유해세균을 제거하기 위한 놀이터 탄성포장재바닥과 놀이시설 소독이 진행된다.

염익준 완산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마약류 범죄 척결' 위한 실무자 워크숍 개최

전북경찰청, 근절 위한 교육·공동 대응방안 등 논의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24~25일 전북경찰청 온고을홀에서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실무자 대상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은 '마약류 범죄 척결' 관련 해 각 경찰서, 관련 기능 실무자들의 취지 공감 및 마약사건 단속·처리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북청, 각 경찰서 실무자 227여 명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북지역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과 공동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후인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청

소년들 사이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디에타민 등)이 마약류에 포함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임에도 각종 SNS 등 이용해 판매하거나 구매해 복용하는 사례처럼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죄책감 또한 적어 재범 우려가 크다. 최근 강남 마약우유 사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범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도 및 강력한 단속을 위해 경찰의 수사력과 유관 기관의 협업 등 총력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경아 기자

"완주 동창생 폭행 가해자, 진실 시인하라"

피해자 유가족들 "폭행 사실 인정 안해... 치료비 못미치는 합의금으로 우롱"

지난해 8월 20일 완주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점을 A중학교 동창생 폭행사건과 관련, 4월 26일 피해자 S씨의 유가족들이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건 당일 동창회 모임 중 저녁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S씨와 가해자 H씨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술을 마신 피해자를 가해자 H씨가 20여분 간 폭행을 가해서 쓰러졌다고 한다. 이 때 썩 소리가 났다고 한다"고 했다.

그런데, "가해자 H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방 한쪽에 눕혀놓고 다음날까지 그대로 방치했다고 한다"며 "펜션을 나와야 할 시간까지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그때야야 119를 불러 전북대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이미 뇌출혈로 뇌 속이 피로 가득차 있어 의식불명인 상태로 수술도 못하고 약물치료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고 유가족들은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 바로 데려갔다면, 피해자의 건강 상태는 현재보다는 훨씬 좋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가

해자는 자기가 때린 게 아니라, 피해자 혼자 넘어진 것으로 하자고 참작자들과 입을 맞췄다"며, 이는 분명한 위증고사라고 성토했다.

유가족들은 "처음에는 친구들이 혼자 넘어졌다고 하니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참작자 중에 한명이 진실을 말해주어서 뒤늦게서야 알게 됐다"며 "친구들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사는 더디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H씨는 지금까지 자기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친구들의 진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회유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어 사건 발생 8개월, 고발한 지 6개월이 지난 4월 13일에서야 H씨가 구속됐고 검찰로 송치됐다"고 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수사과정까지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자측은 구속이 돼서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합의를 하자 연락을 취해 왔지만 가해자는 아직도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폭행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족이 대신 사과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을 우롱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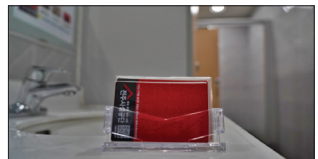
이들은 "전북경찰청 간부인 가해자의 친형을 비롯한 가해자 가족들은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해도 5,000만 원이 넘고, 한달 평균 550여만원이 치료비와 간병비로 나가고 있음에도 치료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합의금 운운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정말 사람이란 이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뇌출혈로 쓰러져 평생을 누워 있어야 할 친구를 때려놓고도 폭행사실도 아니라고 거짓말하고(지난 3월 거짓말 탐지기 결과 폭행한 적이 없다는 대답에 거짓말이라고 나타남), 잘 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는 진정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가족들은 사건의 진상을 엄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하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자 S씨는 신체는 물론이고 인지장애가 있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설공단, 수영장 '안심화장실' 시범 운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기간 방문객 편의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수영장 화장실 개선에 나섰다.

구대식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올라서고 있는 '화장실 몰카'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카메라 탐지카드 500장을 제작해 여자화장실 내 비치했다.

불법카메라 탐지 카드는 신용카드 크기이며 탐지 카드를 휴대폰 뒷면 카메라에 대고 플래시를 켜 채 동영상 촬영하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

특히 공단은 유사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심벨'도 점검했다. 여기에 음약과 함께 향기가 있는 화장실로 분위기를 바꿔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시범 운영 후 보완을 거쳐 전 체육시설로 '안심화장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본격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취급 및 운전 부주의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농기계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4일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경운기가 전복되어 경운기 운전자가 경운기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농기계 안전사고가 509건(2020년 148건, 2021년 184건, 2022년 177건) 발

생했으며, 월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들여다보면 본격적인 영농철인 5월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월(72건)과 6월(67건)이 뒤를 이었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이용 전·후 철저한 점검 △운주 후 농기계 운행 절대 금지 △전방 주시와 후사경 부착으로 뒤따라 차량 확인 △야간 운행 대비 등화 장치 및 후부 반사판 부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경아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